

중장년층의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에 관한 연구*

윤 미**
김 형 빈***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취업과정에 있는 중장년층 7명을 대상으로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구성요소와 25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중장년층 참여자들은 재취업을 하려는 다양한 상황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취업 준비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취업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넷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취업 관련 시설 필요 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둘째,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재취업정책 수립, 셋째, 평생직업 준비를 위한 재취업 예산 확대, 넷째, 재취업관련 지역커뮤니티 시설 구축, 마지막으로 심리상담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중장년층 재취업, 재취업경험, 정책인식, 정책 방안, 현상학

I. 서론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62.3세)에 비해 2020년 83.5세로 약 21년이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기대수명은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기대수명이 긴 나라에 속한다(통계청, 2021). 그러나 평균 퇴직연령이 49.7세로 50세가 채 안 되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퇴직연령 56세에 비해서 조기에 퇴직할 뿐 아니라 노인빈곤율도 43.3%로 OECD 회원국들 가장 높은 1위국에 속한다(OECD, 2017). 더구나 한국은 출산율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생산가능연령(15-64세)이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소득확보 등의 대체수단으로 경제활동 차원의 재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또한 중장년층은 단순노무직, 저임금에 종사하며 근로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2021년 현재 66.5%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67.8%)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독일(75.8%), 일본(77.7%), 스위스(79.3%), 네덜란드(80.1%)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한국의 연령별 고용만족도는 30~50대가 70%임에 비해, 60대는 59.9%에 그치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취업자만족도는 낮아진다(통계청, 2021). 중장년층(40세~64세) 행정통계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33만원이었으며,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다(40~44세:82.4% → 60~64세:71.6%). 더구나 종전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59.4%로 가장 많았고 비임금근로자는 1년~3년 미만(56.5%)이 가장 많았다(통계청, 2021).

이렇듯 중장년층은 취업을 하더라도 10명 중 8명은 3년 미만의 근속기간으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장년기의 실직, 퇴직, 재취업 등의 생애사건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한경혜·이정화, 2012). 특히 중장년기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간세대로서 생애 주기상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이다.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의 사유가 경제적인 필요자금의 확보차원이며 필요자금의 충족방법으로 재취업을 가장 높게 희망하고 있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따라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는 중장년층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성 증대와 고용안정성의 효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일 수 있다(김학주·우경숙, 2004). 정부에서도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복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구직자, 퇴직자 중심의 재취업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정책을 펼치고 있다(윤미, 2021). 그러나 한창 일할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중장년층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취업지원 시스템도 미흡하다(강순희, 2016).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용불안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황주경·강순희, 2021).

그러나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경제적 사정(60%)”에서 비롯되지만 “삶의 존재나 의미를 찾기 위해서(30%)”도 희망하고 있고(김동배 외, 2004), 자기실현, 경제적 자립, 여가선용, 사회적 지위획득 등의 다양한 재취업의 욕구에서 활동하고 있다(염인숙, 2019). 무엇보다도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길어진 삶의 기간에 대해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재취업은 의미가 있다. 즉 사람은 일과 노동을 통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되므로 일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지에 따라 직업이나 일 그 자체가 필요하다(권중돈, 2016). 따라서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사회에서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보충인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이서영, 2009), 오랜 직장과 사회생활로 쌓아 온 경륜과 전문성,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인력활용에 대한 가치도 높다(김미혜 외, 2008).

한편 재취업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별변수 확인 및 경제적 요인에 한정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양적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류형택, 20108; 강

순희, 2016; 염인숙, 2019; 황주경·강순희 2021). 더욱이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정책적,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등을 제안하는 양적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하태중, 2006; 김경선, 2017; 김양건 2019), 특히 정책은 복잡한 이슈들이 현장의 맥락과 함께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현장에서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질적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 현장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재취업은 정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취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의 정도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정에서 경험의 정도는 어떠한가?
- 둘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정에서 정책인식의 정도는 어떠한가?
- 셋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정에서 재취업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중장년층의 재취업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직장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다시 취업하는 것(라진구, 2009), 또는 퇴직 후 경제적 이유나 일의 욕구차원에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류기상, 2009),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완전한 은퇴에 이르기 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류형택, 201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주로 직장이나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한다는 의미에서 “재취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중장년층의 발달 모형

윌리엄 새들러(2015)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학습으로 1차 성장을 이루는 20대 초반까지를 제1연령기(성장기), 제1연령기를 바탕으로 직업과 가정을 갖는 제2연령기(생산성·정착기),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2차 성장을 이루는 제3연령기(중년기 제2차 성장), 노화기를 제4연령기(성공적인 노화)로 정의하였다. 새들러(2015)는 제3연령기에 대해 인생에서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40세 이후가 되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인생의 제2차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1연령기와 제2연령기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단선적인 방향의 경력을 쌓았다면 제3연령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자신의 경력과 일의 포트폴리오 확대 및 재조정,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제2차 성장을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일의 의미가 아닌 인생 전반에 걸친 자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계기로서의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성장모형으로서 제3연령기(40대~70대까지)는 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의 시기로 핵심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

우리나라의 재취업정책은 1980년대 초 노인복지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중장년층 대상의 재취업 정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된 2010년을 전후로 본격화되었고 고령사회에서 부족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또한 정책목표에 따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벤처부, 교육부 등에서 중장년층의 다양한 재취업관련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재취업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고용노동부 중장년층 재취업정책은 <표 1>과 같다.

<표 1> 고용노동부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구분	정책 분류	정책 목적
재직 근로자	○고용안정정책 -계속고용장려금제도	중소·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년도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지원을 촉진함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정책 -생애경력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경력,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도모함
퇴직자	○퇴직이후 사회공헌 정책 -사회공헌서비스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서비스 -경력형일자리서비스	만 50세 ~ 만 70세 사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과 숙련유지를 지원함

출처: 윤미(2021)

4. 해외 주요국의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사례

고령화 사회를 이미 겪은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국들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개발 및 고용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적 또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윤미, 2021). 이러한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고용시장에서 나이제한 폐지 및 정년 연령의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국의 중장년층 재취업정책사례 요약

국가	주요 정책방향	제도 및 서비스 등
미국	○정년제도 폐지(1978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1986년) ○이직·실직·재취업자 등 개별 맞춤형 정책 추진	○커리어원스톱 서비스
프랑스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해고 제한 ○민간차원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 실시 ○중장년층의 능력진단을 통해 직업계획이나 훈련계획 수립	○경력개발상담 서비스 ○능력진단서비스
독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추진: 연방고용공단, 지역고용센터, 민간과 협력적 고용정책 추진 ○대상자 맞춤형 개별서비스 시행 ○고용상담사 양성 및 체계적 심리상담 지원 ○정년연령을 65.8세(2019), 67세(2029)로 추진	○이니셔티브50 플러스 ○WeGabAU 프로그램 ○고용상담인력 양성 및 지원
일본	○정년제도(65세), 연령차별 위법(65세 이상 제외) -고령자계속고용제도 도입(70세 이상) ○기업은 재고용과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고용 ○공공직업 훈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직업훈련기관들이 협력관계 구축: 정부에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폴리텍대학, 센터 등의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 실시	○고령자확보조치의무화 ○공공직업안내소 ○중고령인재은행 제도

출처: 윤미(2021)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현장중심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보다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재취업 중장년층이 재취업과정에서의 생생한 느낌과 생각을 꺼내어 보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는 데 있다. Giorgi(2004)는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인간의 의식 속에 드러나는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데 충실한 방법론이며 분석방법과 절차가 체계적이라는 데서 과학적인 설득력을 지닌다(서미경, 2012). 특히 Giorgi는 연구 대상의 불변의 측면을 사고 과정을 통해 부단히 도출해 내는 자유연상법(free variation)에 의해 경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Giorgi and Giorgi, 1999; Giorgi, 2004). 따라서 Giorgi(2004)가 주장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에 대해 현상학적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재취업 활성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의 적절성과 충

분성이라는 두 가지의 원리 달성을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을 사용했다. 적절성은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며 충분성이란 연구현상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신경림,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중장년층 고용지표 개선 등의 지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중장년층 행정통계 자료'에서 정의하는 중장년층 연령 범위(만 40~64세)와 일치하여 정책대상의 범위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둘째, 직업경험이 10년 이상인 중장년층이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재취업정책에 대한 경험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또는 직접적이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탐색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준비상황이 퇴직·실업·재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였다. 이는 정책의 대상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재취업 준비활동

참여자 (성별)	연령	이전직업과 재취업준비 활동	인터뷰 일자
A (여)	54	○3년 전 건강 악화와 회사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자의적 퇴사(경력 22년) ○민간분야 자격증을 준비중이며, 쇼핑몰 창업이 목표	2021.5.6. (목)
B (남)	54	○공무원 재직 중. 정년퇴직 전 타의적으로 명예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음(경력 27년) ○경험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준비함(자격증과 학위 취득 등의 준비)	2021.5.17. (월)
C (여)	49	○코로나19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고, 인상된 건물 보증금을 맞추지 못해 폐업함(이전 경력 20년) ○요리자격을 업그레이드하여 안정적인 재취업 일자리를 찾고 있음	2021.5.21. (금)
D (여)	45	○회사에 재직 중이며, 자신만의 일을 하기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음(경력 17년) ○현재의 일과 연계된 전문적인 직업과 책방이나 글쓰기를 위한 재취업을 준비함	2021.6.5. (토)
E (남)	59	○25년간 대기업 근무경력 있음. 이후 대학에서 산학협력교수 5년간 재취업을 함(경력 30년) ○재취업 준비 중이며, 재취업이 안될 경우를 대비 건축관련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있음	2021.6.1. (월)
F (여)	51	○외벌이로 생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 나이가 들기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자의적 퇴사를 함(경력 17년) ○최근 지인소개로 회사에 입사했으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2021.7.10. (토)
G (여)	49	○남편의 부모 후 생활비를 벌기위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미용사로 근무중(경력 12년) ○전문적인 미용샵을 오픈하기 경영 등을 배우고 싶어함	2021.6.28. (월)

출처: 윤미(2021)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2021년 5월 6일~7월 10일까지 연구참여자 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유선전화로 안내하였다. 인터뷰는 남성 1명(지역 카페)을 제외하고는 주로 연구자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부족한 부

분은 전화 면담으로 보완하였다. 풍부한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를 유연성있게 진행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풍부하고 실질적인 의미나 경험을 확보하고 제한된 시간에 의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전에 인터뷰 순서와 질문 항목을 준비하였다. 질문지는 직업경험과 현재 상황, 재취업의 의미, 재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움, 정부정책의 도움여부,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통해 현상학적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현상학적 반구조화된 질문지 요약은 <표 4>과 같다.

〈표 4〉 현상학적 반구조화된 질문지 요약

질문내용	세부적인 질문
1. 직업경험과 현재상황	직업(직장) 경험, 직업만족도 등
2. 재취업에 대한 인식	재취업의미, 이유, 시기, 이전 직업과의 연계성, 구체적인 재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운 점 등
3. 재취업정책 인식 및 지원서비스 경험	알고 있는 정책, 정책의 이용경험, 정책이 도움이 되었는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4.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인식	정책 활성화에 대한 생각과 이유,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등 자유로운 의견
5. 기타사항	재취업을 통한 기대한 삶, 기타의견 등

출처: 윤미(2021)

자료분석은 Giorgi의 현상학 분석방법인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현상의 핵심은 경험하는 주체에게 드러난 그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다(Giorgi, 2004).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층이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경험을 탐구하는 단계로서 참여자들의 구술을 녹취하고 일인칭 서술 자료를 읽음으로서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자들의 상황적 진술을 통해 개인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에서 공통적인 맥락을 찾아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진실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경험이 가진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지오르기(Giorgi, 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는 <표 5>과 같다.

〈표 5〉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

단계별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는다.
(2단계) 의미 단위로 구분하기	참여자들이 진술한 특정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한다.
(3단계)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기	구분한 의미단위를 조합하여 가장 근접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한다
(4단계) 전환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기	변형된 의미 단위를 일반적인 기술로 통합하고 종합한다

출처: 윤미(2021)

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밀성 평가 기준(Guba & Lincoln, 1985)에 따라 진

실성, 일관성, 적용성, 중립성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진실성은 내적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현상이 얼마나 진실되고 생생한 것인가, 성실하게 기술되고 해석되는가, 독자로부터 확신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터뷰 과정에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사과정에서 사소한 표정이나 행동과 언어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기록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과 사례에도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인터뷰와 연구 일지, 메모 등의 자료가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이 나올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질적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1명)와 동료(1명)에게 연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인과 자문을 받아가며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해 일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본 연구자는 중립성을 위해서 괄호 치기, 판단중지, 선이해 등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들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을 하나의 현상으로 직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검토를 부탁하여 확인과정을 거쳤다.

5. 윤리적 고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선정과정 및 참여 의사 결정, 자료수집 등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이를 위해 먼저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구했다. 인터뷰 내용과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보장의 원칙이 준수됨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전 녹취에 대한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목적 외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약속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전사 후 참여자의 확인을 거쳐 불편한 내용이나 첨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전반적인 지식, 현상학적 연구에 적합한 연구자의 태도와 의식, 현상학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연구자의 윤리와 자질을 갖추어 나갔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중장년층 연구참여자 7명을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코딩절차를 거쳐 의미단위를 구조화하고 다시 공통된 의미단위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구성요소와 총 25개의 하위 구성요소¹⁾로 범주화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1) 윤미(2021)의 박사학위 논문의 현상학적 분석결과 도출된 5개의 구성요소와 37개의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통합과 재구성을 통해 4개의 구성요소와 25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재구성하였음.

〈표 6〉 중장년층의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구성 요소	하위 구성요소
1. 재취업의 다양한 상황과 의미	1)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선택
	2) 그동안 미루었던 꿈의 실현 과정
	3)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4)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신만의 일
	5)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6)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하고 싶은 욕구
2. 재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	1)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적인 재취업과정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취업과정
	3) 불편한 마음을 풀 곳이 없는 재취업과정
3. 도움이 안 되는 재취업정책으로 인식	1) 이용할 생각조차 못 한 재취업정책
	2) 정책의 도움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취업
	3) 원하는 재취업일자리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음
	4)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재취업 프로그램
	5) 재취업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성 부족
	6)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7) 청년정책에 밀려 소외감을 느끼는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8)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취업 관련 시설
4. 현장의 목소리로 재취업 활성화 방안 모색	1)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 적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다양한 직업훈련이 필요
	3)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교육시간대와 제공방법의 다양화
	4) 지원서비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스톱서비스 제공
	5) 재취업훈련 참여기간 동안의 가족부양비, 생계비 지원
	6)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인식전환 강조
	7) 스스로 자각하고 준비하는 재취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
	8) 1인 창업정책을 포함한 재취업정책으로 확대

출처: 윤미(2021), 연구자 재구성

1. 재취업의 다양한 상황과 의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상황과 의미에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선택, 그동안 미루었던 꿈을 실현하는 재취업,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체적인 삶을 위한 나만의 일,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 건강이 허락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다.

1)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선택

인상된 건물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권리금도 못 받고 빚만 안은 채 식당이 끝났어요. 그래

서 빛도 깊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서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C씨>
 새로운 일을 할 거면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나가서 정착을 하자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안정된 일을 찾지 못했어요.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두렵고 생계형인데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취업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F씨>
 남편사업이 부도가 났고 아이들은 둘이나 대학생인데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나까 기술이든 뭐든 배워서 재취업을 해야 해요. <G씨>

2) 그동안 미루었던 꿈의 실현 과정

지금까지의 일은 생계형으로 일했다면, 재취업은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취업은 내가 하고 싶었던 어릴 때의 꿈의 실현, 인생의 재발견 같은 거예요. <A씨>
 얼마 후면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현재 업무에서 터득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하면서 배우고 터득한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은 거요. <B씨>

3)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일이 없으니 주류사회에서 빠져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진입하기를 원해요. 부모수라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나의 역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회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F씨>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회구성원으로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또 내 나이대도 충분히 재취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D씨>

4)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신만의 일

내가 만들어 내고 일군만큼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성취감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일을 찾아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 거지요. <D씨>
 남 밑에서 회사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이제는 주체적으로 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벌어서 삶을 꾸려가고 싶고 내 손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일이 있어야 해요. <G씨>

5)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일을 하다 보니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게 해주고 마음도 알아주고 그러면서 내 일의 가치도 찾고 의미도 부여해요. 시작은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G씨>
 예전에 직장 다닐 때와는 달라요. 지금은 일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돈에 포커스를 맞추고 돈을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을 통해 여유와 재미를 가질수 있어 좋아요. <F씨>

6)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고 싶음

젊을 때와 달리 활동성은 떨어져요.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 나이대는 경험에서 오는 공감능력이나 이해심이 젊은 친구들에 비해 높다고 생각해요. 준비를 잘하면 70세까지 20년은 더 일을 할 수 있어요. <F씨>

젊을 때처럼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중장년층도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중장년층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살릴 수 있어요. 청년세대와 단절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사회에서 나와 여행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장년층의 장점들을 잘 살리면 앞으로 20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봐요. <B씨>

주변에서 60세가 넘으면 은퇴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나도 그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활동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70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E씨>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일이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고 삶의 재미도 없어 보여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G씨>

100세 시대인데 충분히 70, 80세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하고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퇴사하고 바라는 현재의 일과 연관된 일에 전문성을 갖추는 재취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6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글도 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D씨>

나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주위에 68세 드신 분들도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씨>

연구의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중장년기는 새들러(2015)의 제3의 연령기와 같이 단순히 직업적인 의미만의 일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자아성장이 이루어지는 계기로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은 중장년층의 다양한 일의 욕구와 특성, 건강하고 일을 할 의욕이 있음에도 제도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검토를 재취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재취업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1)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적인 재취업과정

연구참여자들은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재취업에 대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적인 재취업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위축과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대한 재취업을 혼자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게 답답하고 불안하죠. <B씨>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직했지만 실은 준비 없이 나온 거예요. 사업도 하고 이일 저일을 해 보았는데 잘 안되었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두렵지요. 자발적으로 나온지라 더 잘 돼야 한다는 압박도 크고 그래서 마음까지 위축이 되는 거예요. <F씨>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겨우 벌여 쓰는 알바만 하고 있으니, 빚은 언제 갚을지 모르고 두렵고 무섭지요. 다 내 책임이고 나라만 탓 할 수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답답하고 한숨만 나와요. 불면증으로 잠도 못자고 남편 탓만 하다 보니 사이도 멀어지고 대교에 꼭대기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자살)까지 하게 돼요. <C씨>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취업준비

참여자들은 재취업준비는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여, 수익까지 연결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비, 재료비, 자격취득 비용 등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였다.

준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요, 아는 게 없어 집 근처 학원에서 배웠는데 실력을 키워야 하니까 학원비와 재료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A씨>

5~6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취업에 대한 성공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나 등록비용, 자격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B씨>

자격증 취득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나마 나는 퇴직금 타 가지고 투자 많이 했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생계가 급하면 더욱 어렵지요. <F씨>

민간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있지만 비용도 비싸고, 또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어 볼 수도 없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G씨>

3) 불편한 마음을 풀 곳이 없음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서 겪는 경제 스트레스, 재취업의 어려운 현실로 겪는 어려움을 풀 곳이 없어 힘들다고 하였다.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빚을 언제 갚을지 두렵고, 무섭고, 일이 벌어지고 나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중간 생략> 아침에 해가 안 뜨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자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떴다. 오늘 하루도 괴롭겠지만 버티 봐야지, 어디 가서 풀 곳도 없고 답답해요. 직업 상담만이 아닌 경제적으로 해결은 안 돼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풀어주는 곳이 있으면 훨씬 낫겠죠. <A씨>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입장차이가 있잖아요. 퇴직 전에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직장에서 상담 신청을 하면 그게 직장에 알려지고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꺼려지죠. 그리고 우리 나이대는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도 있고, 서로 잘 몰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요. 불편하지만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B씨>

직장 다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직장에서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인사고과나 임원들한테 정보가 전달되니까 두려운 거야. 정신과 가기도 그렇잖아 도움은 받아야 하는 데,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해 <F씨>

이는 중장년층은 발달과정상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며, 자신들의 생활유지와 노후준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시기이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중장년층은 50대 전후로 퇴직을 하고 있어 이미 실직상태 또는 곧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재취업 일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신규 취업정책뿐만 아니라 재취업정책에도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도움이 안 되는 재취업정책으로 인식

1) 이용할 생각조차 못 한 재취업정책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참여자중 일부는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았고 이용할 생각자체도 못했다고 하였다. 이는 재취업정책이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겠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했어요 <B씨>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재취업 혜택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정보가 없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부지원으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죠. <D씨>

국가지원은 생계가 어려워져서 정부지원을 받고자 이용한다고 생각했지, 새로운 직업과 연계해서 평가를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나중에 지인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데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지 <A씨>

2) 정책의 도움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재취업

참여자들은 일자리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지인이나 직장동료 등 개인적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는 제도적인 도움보다는 중장년층들이 오랫동안 사회생활 등으로 보유한 사회적 관계망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인이 제 사정을 들어보고 음식솥씨가 있으니까 작년에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어요. <C씨>

예전의 직장도 기업에서 일을 하며 쌓은 인맥과 선배들의 자산을 활용해서 구했어요. 이번 직장도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동료들을 통해 재취업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E씨>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F씨>

3) 원하는 재취업일자리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음

참여자들은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재취업을 알아보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으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워크넷을 통해 문의도 해보고 구청에도 물어보았지만 와 닿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중간 생략>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직업과 연결이 잘 안 되는 직종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없는 거지요. <C씨>

나는 집수리나 건축 인테리어를 배우기 위해 폴리텍대학을 알아보았는데 없더라고요, 구청에도 가보고 주민센터도 찾아가 보았지만 원하는 과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D씨>

전통적인 기술훈련은 지원되는데 난 문화예술 분야라 지원이 안 된다는 거야. <A씨>

지난번에 구인센터를 가보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이지 못하고 다양성이 없더라고요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자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우리 같은 거지. 직업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F씨>

경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 전 허드렛일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맞는 지원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협회나 민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요. <B씨>

4)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일을 해야할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한참 일할 시간인데, 제가 보기에 10명중 반 이상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도 돌보고 생활도 하면서 생계형으로 주간에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요. <C씨>
교육 시간대가 일을 하면서 병행하기 힘든 시간에 있어요. 교육이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내가 일하는 시간과 동일해요. 한참 일할 시간인데 엄두도 못내지요. <G씨>

5) 재취업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성 부족

중장년층 참여자는 직업훈련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따로따로인 정책이며, 정책 간에도 고용정책과 여성정책 간의 연계성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건 나만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이었어요. 어쨌든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어디서 가면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연결까지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되었다는 거지. 하다못해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E씨>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정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A씨>
 국가에서 하는 거는 약간 어떤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 공통분모적인 거를 찾아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에 관한 것은 고용쪽에 연락하세요. 이거는 여성부한테 하세요. 끝이야. <F씨>

6)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중장년층 재취업정책은 취약계층의 지원정책 보다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장애등급을 받거나 수급자가 되어 혜택을 받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하였고, 생계근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다리 하나 잘리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무수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다리 하나 잘려서 장애등급을 받거나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아예 없어서 나라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이거 중간에서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C씨>
 정책이란 게 취약계층이나 극빈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거야. <A씨>
 원래는 진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 차라리 최저 생계근로 가자.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런 말하잖아 팔다리 하나 잘리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F씨>

7) 청년정책에 밀려 소외감을 느끼는 중장년층 재취업정책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층은 정권에 따라 정책대상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고, 사회초년생들의 신규진입을 위한 취업과 청년창업에만 총량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재취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외감이 드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선전이 나와도 청년이고, 우리 중장년층은 거의 얘기가 없죠. 내가 아무리 알아봐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우스운 거야. 청년들이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청년들은 일을 직접 하기 보다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잖아요.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 힘들기는 다 마찬

가지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중장년층은 소외감이 들어. <C씨>
 정부는 신규로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육성은 했으니
 까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정부는 총량적으로만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중
 장년층은 당연히 재취업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중장년층 재취업정책은 취약하죠. 신규로 진입하
 는 취업만이 아니라 재취업을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데 상당히 아쉽지요. <E씨>

8)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취업 관련 시설

중장년층 재취업 관련시설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자리센터
 나 직업훈련 시설들은 거주지 주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주변에 체육
 시설이나 복지관들은 있는데, 근로자 복지센터나 직업훈련시설들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
 다. 한편,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지는 재취업시설에 대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제
 공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찾아보니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국비로 하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하는
 곳은 거의 없고.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어요. <C씨>
 주변에 취미생활차원의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복지관은 찾아 볼
 수 있는데, 직업훈련이나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곳은 일부러 접하기 어렵지요. <D씨>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자리 정보도 알려주고 훈련도 시켜주면 좋잖아, 쉽게
 접근하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배치해서 취업 상담을 해주거나 안내만 해
 도 되잖아. <A씨>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인식하는 재취
 업정책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이유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앞으로의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실질적
 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취업정책을 수립하여 현실과 괴리감이 없는 정책
 을 펼쳐야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4. 현장의 목소리로 재취업활성화 방안 모색

재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의견
 이 탐색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중
 장년층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들은 원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훈련을 이수하여도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직업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기업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물어보고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비실업자로서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센터도 운영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직업훈련을 미리 기업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직업적으로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해요. 지금의 직업훈련은 재취업으로도 연결되지 않고 기업과 관계없이 따로 놓고 있어요. <B씨>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정말 탁상공론이야, 진짜 뭐가 필요한지 재취업을 원하는 지, 창업을 원하는 지를 물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어. <F씨>

2) 적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다양한 직업훈련이 필요

참여자들은 새로운 기술습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일과 연계하여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원하였고,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훈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장되어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나 같은 경우 지금 하던 일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싶죠. 지금까지 가진 경력과 노하우도 살리고요.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기술을 연마해서 기존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교육이면 더 좋겠어요. <G씨>

중장년층은 새로운 뭔가를 습득할 시간이 짧잖아. 결국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 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취업이 효과적일 수 있어. <F씨>

요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분야 인데, 보통 재취업정책은 기술 아니면 서비스, 사무직 순으로 지원되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예술분야로 확장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좋겠어. <A씨>

3)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교육시간대와 제공방법의 다양화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층은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나 한참 일할 시간에 교육시간대가 편성되어 있고, 또한 재취업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일을 포기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장년층은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도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등 시대에 맞게 다양한 제공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 주었다.

직업훈련은 오랜기간, 대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반을 통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일과 병행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씨>

직장인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위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나도 주말이나 야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나 유튜브도 있고 제공방법을 다양화 주면 이용시간이 넓어지잖아. <A씨>

평일에는 일을 하는데 참여하기가 어렵잖아. 기술을 배우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1~2년, 3~4년 같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었으면 해요. 생계형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참여가 가능한 주말 같은 시간에 개설해주면 가능하지. <F씨>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 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일 끝나고 가서 하는 수업이 있다면 몸은 좀 힘들더라도 받고 싶거든. <C씨>

연령대에 맞는 취득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D씨>

4) 재취업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

참여자들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을 국가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재취업서비스기간 브릿지 역할과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일자리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의 정보망을 국가망으로 연결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부는 브릿지 역할로 어떻게 정보를 탐색해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을지, 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 연결해서 정부의 부족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정책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E씨>

취업이나 창업정보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한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구직정보를 신청해 놓으면, 지금은 민간단체에 어떤 특정 경비를 주고 배우가며 일자리 정보를 받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워크넷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원하는 구직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서 알려준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A씨>

5) 재취업훈련 참여기간 동안의 가족부양비, 생계비 지원

참여자들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계걱정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하고도 15~30년을 더 일을 해야 하는데, 교육받는 동안 가족부양이나 생계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해요. <B씨>

난 생계를 위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참여하는 동안 누가 돈을 벌 어 주겠어요. 아이도 있고 한데. <C씨>

6)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인식전환 강조

참여자들은 고령사회에서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함에 따라 평생직장 개념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인식전환이 중요함과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재직 중에 퇴직 후 재취업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미리 보여주면서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직업교육은 중장년층만이 아닌 20·30대부터 평생직업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비 실업자로 미리 재취업이나 일자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식 교육이나 준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퇴직을 하고도 20년을 더 일할 수 있는데 직장개념보다는 직업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들도 변화에 대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B씨> 직장에서도 해고 전에 직장교육을 통해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여주면 적어도 생각을 하고 퇴직을 할 수 있으니까, 강제퇴직을 당하더라도 충격이 완화되어 새로운 길을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준비가 안된 무방비 상태가 되면 힘들 것 같아. <A씨>

20~30대부터 계속 네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인식시켜 주는 게 필요해. 직장을 다닐 때 직업훈련에 대한 의무교육은 안 받았잖아. 의무교육으로 인식시켜줘 버리는 거야. 20대 30대는 퇴직이 멀었다고 생각했어, 정년까지 다니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와 닿고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게 있어. <F씨>

7) 스스로 깨닫고 준비하는 재취업 인식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정부의 재취업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취업 준비나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중장년층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B씨> 무엇보다도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은 보조적이죠. 그래서 정책은 재취업 준비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A씨>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재취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정부는 그런 것을 도와주어야 하고요. <D씨>

8) 1인 창업을 포함한 재취업정책으로 확대

참여자들은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활성화도 중장년층 재취업정책에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있으나 조그마한 창업을 통해 1인 기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재취업 이외도 창업 프로그램도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C씨>

재취업만 아니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창업을 하잖아요.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인 기업도 할 수 있는데, 재취업정책과 창업정책을 같이 매칭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중장년층 재취업 일자리는 기업에 취직하는 거지만,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B씨>

다른 분들도 이왕 하려면 수익을 창출하는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한다면 그때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평생직업이 될 수 있고 중장년층 재취업이라고 하여 꼭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준비하고 일할 있는 창업정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A씨>

재취업도 있지만 직업을 다시 갈아타려는 사람도 있고 하여 일반적인 단순노동의 재취업 말고 100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정책이 활성화되었으면 해요. <D씨>

기술훈련만으로 취직이 어렵잖아 그래서 1인 자영업도 활성화가 필요해. 그런데 1인 자영업은 준비할 게 많거든. 사람도 써야 하고, 세금도 챙겨야 하고, 기술도 계속해서 배워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래서 기술훈련뿐만 아니라 1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세무적인 것, 아르바이트생 근로관리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훈련이거든. <G씨>

창업지원책도 있었으면 해. 그런데 1인 대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야. 세무, 회계, 소포 부치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 있잖아,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자영업이 잘 되려면 준비단계에서 기술은 기본이고 경영과 세무 같은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해. 자영업에 관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해. <F씨>

연구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분석한 재취업정책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만큼 중장년층은 재취업에 대한 욕구와 희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도출된 재취업정책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반영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중심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층

연구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은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재취업을 원하였으며, 그동안 미루었던 꿈의 실현과정,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신만의 일,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재취업은 단순히 직업적 의미에서만 일의 아닌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자아성장이 이루어지는 계기로써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외에 자아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혼자서 준비하는 데서 오는 막막함과 재취업이 늦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과정이었고, 또한 재취업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재취업 준비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주기 차원에서 통합적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재취업정책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의 도움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취업을 하였다고 하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자리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한참 일할 시간대인 주간엔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하였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으로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청년정책에 밀려 소외감을 느끼는 재취업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의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취업 현장에서 중장년층의 다양한 특성과 재취업의 의미 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분석된 재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중장년층의 다양한 적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과 서비스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가족부양비, 생계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장년층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건강만 허락된다면 70·80세까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2019년 현재 83.5세이고 곧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로 보여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년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 되어 있으나 실제 평균퇴직 연령이 5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고, 미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나이제한 폐지, 일본과 독일은 65세 이상(윤미, 2021)

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정년제도의 폐지 또는 정년연령에 대한 상향선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재취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층은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 외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의 과정임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재취업정책은 직업이나 일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층의 욕구 발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요 기반형의 재취업일자리 창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직업훈련 프로그램,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정보제공,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간대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편성, 1인 창업지원 방안 등의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나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년층의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의 재취업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윤미, 2021).

셋째, 평생직업 준비를 위한 중장년층 재취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재취업 준비기간이 약 2~3년에서 5~6년 이상 소요되고 있었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몇 백 만원씩 비교적 큰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중장년기는 자녀교육비, 가족부양비 등의 지출이 큰 시기로서 자신들에게 들어가는 자기개발비 등의 지출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층 재취업관련 사업 예산이 2021년 1,022억 원으로 청년고용 예산 15,188억 원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윤미, 2021).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청년정책에 밀려 소외감이 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정책이라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평생직업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년층 직업훈련은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하여 재취업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취업관련 지역커뮤니티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중장년층 인력은 예전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오랜 사회생활 등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정책의 도움보다는 지인이나 이전의 동료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취업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재취업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의 지역사회에는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관련 시설, 문화센터와 같은 곳들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취업으로 연계까지는 한계가 있다(윤미, 2021). 따라서 중장년층의 생활근거지에서 재취업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시설의 기능을 포함하여 활발한 정보교류와 생산적인 재취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재취업 관련 지역커뮤니티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장년층의 심리상담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배경에는 준비된 퇴사도 있었으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퇴사도 존재했다. 이 밖에도 사업의 부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일을 멈추어야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늦어지는 재취업은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이고, 불면증, 배우자와의

찾은 다름, 부채에 대한 두려움,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에 대한 의욕상실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참여자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가득했으며 정책적 지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중장년기의 직업상실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따라서 극심한 생활고로 겪는 경제스트레스와 가정의 불화, 실직자로서의 소외감, 재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재취업중장년층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재취업활성화 방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모색하기 위해서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을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으로 시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관련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선행사례가 거의 없어 현상학적 본질과 의미구조를 다소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밝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중장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일자리기관 등에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6).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취업진로연구」 6(3): 117-140.
- 권중돈. (2016). 「노인복지론(6판)」. 서울: 학지사.
- 김경선(2017).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13(155).
- 김동배·이윤화·안인경. (2004). 노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75(2):49-78.
- 김미혜·이현주·서미경. (2008).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 노인의 구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8(1): 123-142.
- 김양건(2019). 한국 중장년 일자리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주·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97-110.
- 라진구. (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 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기상. (2009). 한국의 고령인력 재취업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형택. (2010). 중년남성의 재취업 유형과 직업만족도의 영향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04).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염인숙. (2019). 중고령자의 개인적 특성과 노후준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 사회과학연구」 30(4):175-195.
- 윌리엄 새들러. (2006). 「서드페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 윤미. (2021). 중장년층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과 현상학적 탐색.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김형빈. (2021). 중장년층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한국심리유형학회」 22(1): 1-23
- 윤미·김형빈. (2021). 중장년층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5(2):53-87.
- 윤미·김형빈. (2022). 중장년층 재취업활성화 정책방안: FGI기반의 AHP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6(1):297-320
- 이서영. (2009). 노인복지의 현실과 미래 고령화시대 노인의 건강과 생계대책 마련. 「노인복지」 (1): 62-65
- 하태종(2006). 고령자 고용문제와 고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필우. (2019). 지역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주경, 강순희(2021) 중장년의 노후준비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취업진로학회」 11(1): 115~134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Ewha Woman University, Seoul.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https://www.hrd.go.kr>

국가지표체계. <https://index.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tat.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2018-2019). 중장년층 구직활동 보고서.

OECD(2017). OECD Data(poverty-rates). <http://data.oecd.org>

윤미(尹美):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상담심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심리치료, 상담심리, 가족상담, 성 심리상담, 행정학 등이다.(blue1017@dau.ac.kr)

김형빈(金亨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초교양대학장, 의료상담심리학과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재무행정, 지방의회, 지방분권, 도시정책, 의료상담심리학 등이다. 주요 논문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2021),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사상(2021),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2021) 등이다.(hbkim@da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Reemployment Experience and Policy Recognition of the Middle-Aged

Yun, Mi

Kim, Hyung 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revitalize reemployment among middle-aged people, and phenomenologically, the reemployment experience and policy perception were analyzed for 7 middle-aged people in the reemployment process. As a result, they were categorized into 4 components and 25 sub-components. First, middle-aged participants showed a combination of various situations and meanings to re-employment. Second, preparing for reemploymen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and anxiety and fear appeared continuously in this process. Third, the reemployment policy was recognized as being practically unhelpful. Fourth, as a plan to revitalize reemployment sought by the voice of the field, opinions were drawn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programs based on demand surveys and reemployment-related facilities to provide one-stop service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reemployment revitalization plan for the middle-aged needs to improve the age limit system, establish a customized reemployment policy based on a demand survey, expand the reemployment budget, establish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finally exp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services.

Key Words: Middle-aged Reemployment, Reemployment experience, Policy recognition, Policy measures, a phenomenological analysis